Column

양보와 타협으로 화합을

글 · 이 성 식
소화아동병원장
(병협 경영이사)

병원계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단체나 노조 등은 엄살이라고 치부해 버리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익사 직전에 마지막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병원들의 이런 어려운 경영상황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한해에 4천여 명씩 쏟아져 나오는 의사수, 물가 인상률과 원가에 크게 못 미쳐 도저히 의료수익을 낼 수 없는 낮은 의료수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그 정도의 낮은 국민의료비조차 제대로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건강보험료, 그런데도 점점 높아만 가는 환자들의 요구와 기대치, 의료비 수준에 비해 한없이 높아만 가는 의료사고 보상액 등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산업의 임금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병원 수익에 비해 과다한 직원들의 임금 인상,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병원과 의사들 간의 과다한 경쟁, 곧 다가올 의료시장 개방, 부당 청구라는 단어를 써서 허위청구나 착오 청구와 구분 없이 의료계를 매도하는 보험당국,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끝없이 요구되는 의료의 공공성 등 열거하면 끝이 없는 여러 요인들이 병원의 경영상황을 어렵게 하고, 이런 상황은 병원경영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답답함과 절박한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가장 순수했던 시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며 스스로에게 진실된 의사로서 살아갈 것을 약속을

이제 세상이 의사들을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가진 직업인으로 보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회를 이끌어가는 고귀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가진 지식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갈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의사들이 기득권과 과거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인으로 변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했기 때문에, 또한 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봉사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공공성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들이 오늘도 답답한 마음과 울분을 참고 열심히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세상이 우리 선배들이 과거에 누렸던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우월한 지위나 경제적인 풍요를 인정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병을 치료받는 – 그야말로 주고받는 관계로 대하는 – 참으로 의사로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이제 세상이 의사들을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가진 직업인으로 보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회를 이끌어가는 고귀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가진 지식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갈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의사들이 기득권과 과거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인으로 변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 사회적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정년을 못 채우고 조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회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일단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이런 풍조로 인해 나아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의과대학에 편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교육비 경감책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의 대학원 전환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요구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그런 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됐을 때 13–16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의사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이며, 사회적인 낭비가 아닌가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근시안적 정책추진은 젊은 후배들에게 의사로서의 고귀한 직업관이나 희생정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가 되기보다는 당연히 위험성이 적고 수입이 많으며 개인의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과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돈이 최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다고는 해도 과연 의사들까지 이래야하는지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근시안적 정책추진은 젊은 후배들에게 의사로서의 고귀한 직업관이나 희생정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가 되기보다는 당연히 위험성이 적고 수입이 많으며 개인의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과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돈이 최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다고는 해도 과연 의사들까지 이래야하는지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병원협회를 제껴둔 채 의사들과 약사들만의 합의로 병원의 외래조제 업무를 일방적으로 뺏아가 버리고 말았다. '병원에 조제실이 존속하면 의원들이 환자를 병원에 뺏길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미 직능분업을 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도 없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하도록 한 것이다.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토록 합의한 의약분업 시행 직전 당사자들은 과연 이런 것이 병원이나 의원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를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야 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늦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약사회가 자리를 함께 하여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의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 국민의 편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나갈 때 우리 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인 화합의 길로 걸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사수의 감축, 부실한 의과대학의 통·폐합 문제,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 그리고 그로 인해 부족해진 대학병원들의 급성기 병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병원들의 병상 증설 경쟁 문제, 옛날에 병상이 부족했던 시절에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병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의원들의 입원병상 문제, 십수 년 간 공부해 온 전문과목은 다 걷어치우고 좀더 수입이 나아 보이는 임상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영역 파괴문제, 의사로서 도저히 해선 안 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 이 모든 문제들은 의사들 스스로 반성하고 의사로서의 기본 마음가짐을 되찾고 같은 의료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의 마음을 가지 않고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낮은 건강보험요율과 낮은 건강보험수가 그리고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이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국가가 돈을 더 부담하는 것이 해결책인줄은 국민도 알고, 시민단체도 알고, 건강보험 당국도 잘 알고 있으며,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더욱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데 국민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건강보험의 기본정신이 '십시일반' 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 호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나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막상 아파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때는 낮은 보장성에 원망만 하고, 시민단체들과 노조는 앵무새처럼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지정 진료비 철폐나 비급여 불허 등 보장성 증대와 심지어는 무상의료를 주장만 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국민의 표만 생각하는지 무너져가는 의료산업의 육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수가의 현실화는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가 되어 버려서 그 누구도 큰 목소리로 건강보험수가의 인상을 주장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모든 것이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고, 끝없이 의료계의 양보와 손실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론의 여지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계와 의료인 그리고 의료산업이 모두가 위축되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먼저 의료인들이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는, 진정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가다듬어 철저한 자기반성과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꾀해야만 꽉 막힌 의료계의 숨통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들 역시 의료계와 의료인들을 돈만 벌려고 하는 집단으로 계속 매도하며 위축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를 신중히 생각하고, '의료의 발전이 바로 전체 국민의 건강에 더 보탬이 될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모아 주어야 할 것이다. KHA